學校法人 城西大學
JOSAI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Promotion of Art and Science
(JICPAS)

Newsletter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40주년기념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개설기념 특집호

Josai University Corporation
3-26 Kioi-cho, Chiyoda-ku, Tokyo ☎03-6238-1300 http://www.josai.jp/

No.2

學校法人 城西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03-6238-1300
http://www.josai.jp/

강연회

「스바루 망원경으로 본 우주」

2005년9월17일(토) 오후2시～오후3시30분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 B1F홀

강사 : 가이후 노리오(국립천문대 대장)
주최 : 죠사이대학 물리학부

2005년9월17일에 국립천문대 가이후 노리오 대장을 맞이하여,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에서 제기(題記)강연회가 물리학부 주최로 열였다.

당일의 참가자는 일반인67명, 교직원 44명, 대학원생 24 명, 학부생 79 명이었고, 홀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3층에 있는 시청각실에서 청강할 수 밖에 없었지만, 강연이 끝난 후에 열였던 파티에서 질문이 있는 사람은 직접 가이후 대장에게 물어보는 기회도 마련 되었다. 강연회는 다나까 아키라 학장의 인사말이 있은뒤, 한 시간 반에 걸쳐서 가이후 대장의 스바루 망원경은 어떤 관측을 하고 있는가라는 연설이 있었다. 우주망원경과 다르게 지상망원경은 공기층을 통과시켜서,우주를 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선입관이 있지만, 스바루망원경은 표준의 별에서의 빛을 사용하여 공기의 움직임을 보정한 시스템(보상광학장치)을 개발하여 얻은 영상이 합불 우주망원경에 필적한다고 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경8.2m의 중심렌즈는 세계 최대이다. 강연이 시작되자 스바루망원경으로 관측한 수 많은 성운과 은하의 아름다운 영상이 보여졌다. 성운은 무지개색에 가까운 컬러풀한 구름으로써 몇광년에 걸친 범위로 넓혀지고 있지만, 색은 원래 색깔로 원자에서의 발광이며, 성운중의 검은 구름에 따라 다수의 별이 생겨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스바루의 관측에 주력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은하관측이다. 우주의 창세는 137억년이지만, 스바루에서는 128억광년 원방의 은하를 발견했고, 가장 알려져있는 원방의 은하10개중 7개를 발견하였다. 원방에 있는 은하관측은 우주의 창세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방의 은하를 망원경으로 보면 쇠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다. 이러한 우주의 대구조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으로 보이는 물질은 우주 구성의 3%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체를 알수없는 다크마타가 30%까지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나머지70%는 다크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동경천문대에서 우주로 떠나, 50억광년 원방까지 가는 동안에 태양계나 우리들의 은하가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거대한 공간스케일의 이야기이지만, 거대한 시간스케일의 이야기로써, 빅뱅에서 현재까지 우주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화를 이루었는지의 이야기도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하면 당연한 귀결로써 우주에 있어서 혹성과 생명은 보편적인 것이 된다. 그 관측이 큰 테마가 되고 있고, 스바루에서도 태양계 이외의 혹성발견에 주력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현재100개나 발견 되었지만, 서로의 속셈을 밝히지 않고 새로운 발견을 향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천문학의 고찰로써의 생명탄생의 요건이 제시되어, 그 결과 가이후 대장은 혹성 대기중에 산소를 발견하면 생명(박테리아적 생명)존재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발견을 향해 거대한 우주 스페이스 망원경을 구상하고 있다고 연설의 끝 매듭을 졌다. 연설후 참가자로부터 다수의 질문이 있었다. 무척 알기쉬운 연설이었지만, 가장 훌륭한 것은 가이후 대장의 계몽적인 이야기로써가 아니고, 사이언스로써의 연설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력이 있고, 우리들이 좀처럼 듣지 못하는 연설이였기에, 가이후 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일본 어린이들의 자연과학 기피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화학회, 일본물리학회, 여러대학등 각각의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창립40주년 기오이쵸 캠퍼스 개설 기념 강연회에 물리학부로써 기획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셔서, 우리들과 관련된 사이언스분야에서, 일본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가이후 대장에게 스바루의 이야기를 부탁드렸다. 정말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강연이었고, 이렇게 훌륭한 일본의 사이언스를 선출해 제시하는 것도,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대한 대학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심포지엄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5년10월1일(토)오후2시～4시30분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 B1F홀

패널리스트 : 오오하시 켄사크(일본사회사업대 학장)
스미타니 시게루(환경성 사무차관)
노자와 가즈히로(마이니찌신문 사회부 부장)
코디네이터 : 오오타니 리츠코(죠사이국제대학 복지종합학부 부장)
주　　최 : 죠사이국제대학 복지종합학부
후　　원 :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지난10월1일(토)의 상쾌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죠사이국제대학 복지종합학부 주최,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에 의한,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설립4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가 개최 되었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이 상부상조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줄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우리들이 공유해야 할 이념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테마로 기획했다. 패널리스트로써, 오오하시 켄사크 학장(일본사회사업대), 스미타니 시게루 사무차관(환경성), 노자와 가즈히로 부장(마이니찌신문 사회부)의 세분을 모시고, 오오타니 리츠코 복지종합학 부장이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당일은300명을 넘는 분들이 참가해주셨고, 캠퍼스B1F홀에는 들어가지 못해, 어쩔수 없이 학교 관련자와 학생들은 시청각실에서 청강할 정도였다. 죠사이대학의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사카도시의 민생위원들도 참가하여, 기념행사에 어울리는 심포지엄이 되었다. 개회 인사말 후, 제1부로써 각 패널리스트에게 각각의 입장에서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받을 수 있었다. 오오하시 학장은 지역 공동 사회 형성과 소셜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실제의 문제로써, 체득해 나가야 하는 것의 중요성등을 지적하셨다.

스미타니 사무차관은 소셜워크 교육의 이념과 지역에서의 전개에 대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하셨다. 노자와 부장은 지역에서 장해자가 생활하기 위해 현재도 계속해서 권리침해나 차별을 없게 하기 위한 실천을 전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하셨다. 이어서 제2부의 디스커션에서는, 참가자로 부터의 질문응답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심포지엄의 총괄로써,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도와주는 체제 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명확한 이념을 걸고, 실천을 계속하는 것이, 기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후원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

「에도시대의 일본인은 일본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2005년10월22일(토), 10월29일(토)오후1시～5시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 3층 302교실

1. 10월22일(토)
패널리스트 : 하가 토오루(쿄토조형예술대학 학장)
헬벨트 푸르쵸(죠사이국제대학 교수)
이따사카 요오코(후쿠오카교육대학 교수)
코지마 야스노리(국제크리스트교대학 교수)

2. 10월29일(토)
패널리스트 : 미나모토 료엔(일본학사원)
하마다 케스케(쿄토대학명예 교수)
카사야 카즈히코(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타구찌 마사키(스가에마스미연구회 부회장)

주　　최 : 죠사이국제대학 비교문화연구소

10월22일(토)과 29일(토)의 2주일간에 걸쳐서 죠사이국제대학 비교문화연구소 주최의 심포지엄「에도시대의 일본인은 일본을 어떻게 발견했는가」가 열렸다. 첫날 22일은 동경대 명예교수겸 쿄토조형예술대학 하가 토오루 학장, 죠사이국제대학 헬벨트 푸르쵸 교수, 후쿠오카교육대학 이따사카 요오코 교수, 국제크리스트교대학 코지마 야스노리 교수를 맞이하였고, 이어서 29일은 일본학사원의 미나모토 료엔님, 쿄토대학 명예교수겸 하나조에대학 교수의 하마다 케스케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의 카사야 카즈히코님, 스가에마스미연구회 부회장의 타구찌 마사키님를 맞이했다. 22일의 첫 발표자인 하가 토오루 학장은 「관조에서 관찰에— 18세기에 있어서의 여행과 일본발견」이라는 테마로 발표하셨다. 내용은 여행문학에 있어서의 내면적 집중, 예를 들면 마쯔오 바쇼의 정신기련에서 외

이따사카 요오코 교수

코지마 야스노리 교수

하가 토오루 학장

헬벨트 푸르쵸 교수

카사야 카즈히코 교수

타구찌 마사키 부회장

마나모토 료엔씨

하마다 케스케 교수

면적 관찰등, 에도시대에 표현된 새로운 기행인 "바깥" 의 집중에 관한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따사카 요오코 교수는 「기행에서의 사물의 관점」라는 테마로 발표하셨다. 내용은 에도기행에서 보여지는 도시의 보기에 관한 것으로, 쿄토, 오사카, 나가사키등의 묘사가 많이 지적되어 있기는 하지만, 에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셨다. 코지마 야스노리 교수는「자기의 속에 있는 〈일본〉의 발견 — 츠가루의 민속학자 히라오 로센」이라고 하는 테마로 발표하셨다. 국학이 어떻게 민속학을 발달시켰는가, 그 경위를 분석하셨다. 마지막으로, 푸르쵸 교수는「에도시대의 일본인은 일본을 어떻게 발견했는가」라는 테마에 대해서, 에도시대에 생긴 새로운 것의 견해, 물건의 사고방식, 그리고 편견없고 다양성이 풍부한 일본의 발견에 대해 발표하셨다. 제2부에서, 첫번째 발표자인 미나모토 료엔님은「에도후기 및 막부말전기에 있어서의 고결한 지식」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에도시대의 사상사와 합리주의, 그리고 과학적인 사물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마다 케스케 교수는「일본상대화를 향한길— 명조출판문화와 학문의 상대화를 경과하여」라는 테마로 발표, 중국 명나라의 출판문화가 일본의 출판문화에 어떤영향을 미쳐는가에 대해 연설하셨다. 카사야 카즈히코 교수는「토쿠가와 요시무네의 쿄호개혁과 국산개발정책」이라는 테마로, 일본전국의 자원과 약초등의 탐험여행이 일본의 발견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셨다. 또한, 본초학에서 박물학에의 전개와 기행에서 보여지는 박물학적 사물의 관점과의 관련에 대해 언급하셨다. 타구찌 마사키 부회장은「눈이 많이오는 지방의 상민을 기록하는 여행자(스가에마스미)」라는 테마로 발표하셨다. 왜 스가에마스미는 극명하게 토호크지방과 가이의 민속풍습, 사회, 문화등을 그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2주일에 걸쳐서 다방면의 테마를 가지고 발표한 이번 심포지엄은 질문응답도 성황리에 진행 되었다.

강연회

「연애사상의 역사 —비교문화론적으로—」

2005년11월12일(토)1시30분~3시

동경기오이쵸 캠퍼스지하B1F홀

강　사 : 코야노 아츠시

(비교문화연구자, 문예평론가, 국제일본문화센터 객원 조교수)

주　최 : 죠사이국제대학 인문학부

11월12일(토)동경 기오이쵸 캠퍼스에서,죠사이국제대학 인문학부의 주최로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설립40주년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코야노 아츠시 조교수를 강사로 모시고,「연애사상의 역사」라는 테마로 연설하셨다. 당일의 참가자는 일반 참가자, 인문학부의 교원, 그리고 학생등, 약150명이상 이었고, 출판관계자도 많이 참석하였다. 코야노 조교수는 현재,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객원 조교수겸 동경대학 시간강사로써, 활약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인기없는 남자 – 연애론을 초월하여」(1999년)으로 유명해진 기예의 문예평론가이다. 또 여러작가, 학자들의 작품과 학설에 대해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비판하는 평론가로써도 알려져있다. 저서도 무척 많고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러나, 데뷔 이후의 작품은 연애의 역사와 사상에 중점을 둔 작품이 많고, 이번 강연도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다. 내용은 여러 갈래에 걸쳐있지만, 논점은「연애」라고 하는 것은12세기에 서양에서 발생하여, 메이지시대에 근대화와 같이 수입된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지만, 이것은 틀린 것이며, 일본에도「겐지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옛날부터 연애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고대의「사랑」과 메이지시대 일본에 들어온「연애」와는 같지 않았다. 고대의 사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바치는 것이었고, 서양에서는 여성 숭배적인 연애관이 그후에도 저류로써 남아있지만, 일본에서는 중세쯤으로 부터 여성 멸시적인 연애관이 나타나면서, 에도시대 후기가 되면서,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는 것은 촌스러운 것이며,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야말로 세련된 것 이라고 변천해왔다. 그 때문에 연극등에서는 여자를 사모하는 남자는 언제나 원수역활이었다. 에도시대의 사랑은 유

곽에서의 남녀관의 사랑이 중심이었고, 그 곳에서는 서로 상사상애가 보여줬지만, 메이지가 되면서, 미국에서 크리스트교를 배경으로한 연애결혼 사상이 들어 오므로써, 서로 상사상애=연애, 그리고 연애, 결혼, 성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연애관이 점점 주류가 되어가, 쇼와의 중기쯤에 들어오면서, 소위 연애지상주의가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연애관의 변천을 중심으로 프라토닉 클럽이 통상 소년애라고 말해야될 것이, 오해가 된 것이나, 연애지상주의가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고하는 망각이 있었기에, 과오가 있었다고하는 의론이 전개되었다. 게다가, 모리오 가이, 나츠메 소오세키, 요사노 아키코등에 대한 코야노 조교수 풍의 날카로운 비평을 섞어가면서 한시간 넘게 강연하셨다. 종료 후, 참가자의 앙케트를 회수

한 결과, 재미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강연회는 이벤트와 보통수업을 연결시킨 첫 시도로써, 강연종료 후, 회의장앞에서 학생들에 의한 포스터 발표「연애와 그 주변」이 열렸다.「결혼식의 전후사」,「청바지의 젠더론」「사모와 사랑」「칠석제 전설주의 연애」「카모노쵸메이와 연애」「문각과 서행의 사모」「사모의 죽음」에 대하여 7개의 테마로 손수만든 포스터를 앞에 두고 발표가 진행되고, 대학 관계자외의 일반참가자도 참여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강연회

「내가 왜 작가가 되었는가 —미국에서, 회화에서 문학, 그리고 활동으로」

2005년11월19일(토)오후1시30분~3시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 B1F홀

강 사 : 코메타니 후미코(작가)
주 최 : 죠사이국제대학 젠더여성학연구소

11월19일(토)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에서, 작가 코메타니 후미코님을 강사로 모시고, 강연회「내가 왜 작가가 되었는가— 미국에서 회화에서 문학,그리고 활동으로」가 열렸다.

제목에 소개된 것 처럼 강연은 코메타니님의 성장기부터 현재까지의 자취와 최근의 일본과 미국사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상황을 사회및 사람을 통해 날카로운 시점과 독특한 어조로 말씀하셨고, 다양한 시사를 주신 내용이었다. 작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한 것은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로부터 강연은 시작되었다. 이웃의 규수 여류 화가에게서 사사를 받고, 3학년생 때, 화가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마침 그 당시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었고, 얼마되지 않아 진주만 공격등,시대는 전쟁일식이 되어버려, 물질도 열악한 상태가 되어가, 코베롯코에서 오사카의 학교까지 다닐쯤에는 공습가 심해졌다고 한다. 종전 후, 국문학과에 진학하지만, 그림에 몰두해 5년만에 니시나전람회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화단은 남성중심이며 계급적인 상태를 목전하면서,해외, 특히 유럽행에 꿈을 꾸었지만, 당시는 신원보증인이 없으면 해외도항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미국 각지에 편지를 보내 도항의 가능성을 찾는 한편, 외화가 없으면 해외출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 속기를 배워, 외국상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얼마 지난 후, 슬라이드를 보냈던 뉴햄프셔 주피터 보러에 있는 예술촌에서의 초청장을 받고, 갈 결심을 굳혔다. 1개월의 장거리 여행끝에 도착한 예술촌에서는 맨 처음에 자기 주장이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것, 남편이 된 남성과의 만남, 결혼 후 뇌장해의 자식이 태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한 과정에 대해 말씀하셨

다. 일본에서는 매사 비판을 하면「중얼중얼 불편만 늘어놓아 꼴사납다」라는 말을 듣지만, 미국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져버린다는 차이에 직면하고 있었다. 코메타니님은, 추상화로는 사회에 호소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어,사회에 대해 좀 더 영향력이 큰 집필을 시작했다. 모국어로 쓰기에는 소설이 적합하다고 생각한 코메타니님은, 외국에서 자란 소수 민족을 여성의 눈으로 본 미국 문화,유다 문화,핸디캡 문화, 소수 민족문화를 테마로 소설을 쓰셨다. 코메타니님은「일본인은 일본을 떠나자마자 사회 비평가가 될 수 있고, 외국에서 살면 일본의 비평가가 될 수 있다」「학생으로부터 아름다운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말하고 싶

은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예술에 법칙은 없고,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셨다. 계속해서 현재 위급한 것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강탈하려고 하는 사태가 일본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카데미즘 중에서 핵 발렐스만을 가르쳐, 핵무기의 파괴력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생명에 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서술하셨다. 이라크전쟁이 시작된 후, 50대의 사람들이 핵 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개는 베트남 반전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에 반해, 지금의 젊은이들이 무관심한 것은 전쟁의 잔혹을 모르기 때문이지, 전쟁에서 제일 처음 죽는 입장에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쟁과 핵의 무서움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셨다. 대학에서의 핵반대 전시회의 준비에 참여한 학생은 소수이지만, 그들의 정력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 운동중에서 과학자에게는 독약을 넣지 않는다는 것, 기술자에게는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코메타니님의 소망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어린이들이 평화로움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만들기가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셨다. 또한 일본에 있어서는 헌법제9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셨다. 강연 후, 질문응답에서는 헌법 제9조와 자위대라는 이념과 현실의 차이, 젊은이들의 무관심, 시민운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현대사회의 위태로움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하셨다.

심포지엄

「차세대 출판을 생각한다
—활자문화의 오픈플랫폼화에 의한 출판의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2005년11월29일(화)오후2시～5시30분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 B1F홀

제1부 현재의 출판계 사정

1. 전자북
「전자문고 파부리5주년」을 맞이하여— 출판사 자사운영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와 그 후의 전망에 대하여
호소지마 미쯔요시(코분샤 디지털사업부 부장/전자문고 출판사회 간지)

2. 온데만드북
(1) 콘텐츠워크의 설립 목적과 실제
요시이 쥰이치(코단샤 디지털사업국 국장/콘텐츠워크 대표사장)
(2) 온데만드판의「츄오문고 와이드판」의 전개
이토 아키히코(츄오공론사 서류편집국 차장/츄오문고 편집부 부장)

제2부 차세대출판을 생각하다 — 활자문화의 오픈플랫폼의 제안

1. 전자북
「컴퓨터— 전문 독서 단말」의 연동
사토 마코토(마츠시타 전기산업 주식회사 파나소닉 시스템 소류션즈사 팀장)

2. 온데만드북
점두 온데만드 잡지에서 고롯트 제조「책」에의 전개
카메이 마사히코(코니카 미놀타 비지니스 소류션즈 주식회사 사업부장)

3. 데이터 제작
데이터 제작과 다각 전개를 서포트하는 저가격「DTP」소프트의 협동개발 프로젝트
타케오 카츠미(주식회사 에프텔 타케오 대표사장)
타다 히로시(케논 시스템 소류션즈 상품사업 총괄본부 부장)

4. 전자북,온데만드,책의「활자 문화의 오픈플랫폼」의 구축에 의한 새로운 활자 비지니스 모델의 디자인
엔 후쿠유키(죠사이국제대학 비지니스디자인연구과장)

사 회 : 타가기 토시히로(주식회사 클리에시옹 대표/와세다대학 시간강사)
주 최 : 죠사이국제대학 대학원 비지니스디자인연구과, 메디아학부, 정보과학연구센터
공동개최 : 전자문고 출판사회(전자문고 파부리)
후 원 : 코니카미놀타 비지니스 소류션즈 주식회사, 마츠시타 전기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텔타케오,케논 시스템소류션즈 주식회사,
다이나컴웨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알오

학교법인 죠사이대학 설립40주년, 죠사이국제대학 대학원 비지니스디자인연구과 개설 기념및 전자문고 출판사회의 웹사이트「전자문고 파부리」개설5주년을 기념하여, 심포지엄이 11월29일(화)에 동경 기오이죠 캠퍼스에서 열렸다. 당일은 본교의 교원과 학생 뿐만아니라, 출판관계자 약160명도 참가해, 엔 후쿠유키 교수첨단의 사례보고와 활발한 제언으로 출판업계가 주목하는

심포지엄이 되었다. 심포지엄은 2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전자문고 출판사회 간사인 호소지마 부장은 전자문고 출판사회와 그 웹사이트의 설립 경위에 대해 보고했다. 전자문고 출판사회는 출판 원조로써, 일본의 전자서적을 리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요시이 국장와 이토 차장으로 부터는 전자서적및 온데만드 출판에 관한 대처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 전자서적의 규격통일과 새로운 시장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부에서는, 현재 죠사이국제대학 대학원 비지니스디자인연구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동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와 새로운 산학제휴의 제안이 있었다. 마츠시타전기의 사토 팀장은, 도트북 규격에 따른 전자서적의 전개에 대해 논설하고, 코니카 미놀타의 카메이 부장은,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는 온데만드 출판에 대한 보고를 하셨다. 또한, 타케오 사장과 타다 부장은, 일반인이라도 책이나 잡지를 제작할 수 있는 저가격 소프트를 개발중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엔 연구과장은, 전자서적과 온데만드 출판에 있어서 오픈플랫폼의 구축의 필요성을 호소함과 동시에, 전자서적규격 TTV2.0의 사용을 처음으로 공개「학술및 비영리」의 조건하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심포지엄의 취지에 찬동하여 달려오신 작가 코마츠 사쿄님은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을 경의 방문하시고「코마츠사쿄 전집」을 본교 관리하에 있는 전자서적과 온데만드 출판에서 전개하기로 표명하셨다. 이 심포지엄에서 밝혀진 다양한 제언과 대처는 출판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판계의 전문지「신문화」는 일면 톱으로 매스컴계의 전문지「문화통신」에도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미즈타 노리코 이사장(중앙오른쪽)과 코마츠 사쿄씨(중앙왼쪽)

심포지엄

「미래의 의료 약학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

2005년12월3일(토) 오후1시30분~4시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B1F홀

패널리스트 : 아마노 케이코(치바현 위생연구소 소장/토가네병원 부원장)
우에노 코이치(치바대학 대학원 약학연구원 교수)
아이바 세츠야(토호쿠대학 대학원 의학계연구과 교수)
와다 세이키 (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 교수)
사 회 : 나카지마 신이치로(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장)
코다마 야스오(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 교수)
주 최 : 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
후 원 : 사단법인 일본병원 약제사회

2005년12월3일(토) 오후1시30분부터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지하 B1F홀에서 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 주최, 사단법인 일본병원약제사회 후원으로 열렸다. 패널리스트에는, 치바현 위생연구소 아마노 소장, 치바대학 대학원 약학연구원 우에노 교수, 토호쿠대학 대학원 의학계 연구과 아이바 교수, 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 와다 교수등4명을 맞이하여, 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 교수겸 약학부 부장인 나카지마님과 동 코다마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당일은 많은 일반 참가자및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초고령화사회및 고도 의료화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기발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각 패널리스트의 강연을 통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아마노 소장은「성차(性差)의료를 지향하는것, —그 현상과

와다 세이키 교수

우에노 코이치 교수

나카지마 신이치로 교수

아이바 세츠야 교수

아마노 케이코 소장

전망 —」이라는 테마로, 성차의료의 목적과 그 이념이 생긴 배경, 그리고 해외에서의 실천에 대해 말씀하셨다. 우에노 교수는「약의 효과와 성차 —개별화 의료를 겨냥하여」라는 제목으로 약물 치료에 있어서 효능과 부작용에 왜 남녀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기쉽게 해설해 주셨다. 아이바 교수는「건강한 스킨을 위한 —피부병을 알자 —」라는 테마로 피부암의 자기검진 권장, 피부암으로 죽지 않기 위한 6조항 (1.가렵지 않은 피부병일 경우 피부암으로 의심해라 2.치료하기 어려운 습진일 경우 피부암으로 의심해라 3.낫기 어려운 피부 궤양일 경우 피부암으로 의심해라 4.검은 사마귀는 피부암으로 의심해라 5. 성장하는 사마귀는 피부암으로 의심해라 6.피부암이라고 의심되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라) 일반적인 피부암에 관한 해설, 정확한 피부와 검진의 요령에 대해 언급하셨다.

와다 교수는「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라는 테마로, 왜 골다공증이 문제되는가, 폐경후의 뼈 흡수와 뼈 형성의 바렌스에 대해, 대표적인 약물 치료에 있어서 치료약의 사용구분에 관한 설명이 있으셨다.「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라는 신변의 테마이기 때문인지, 참가자들은 열심히 각 패널리스트의 해설에 귀를 기울렸다.

심포지엄

「미래의 의료 약학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 —의료에 있어서의 정성과 기술」

2005년12월10일(토) 오후2시~5시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B1F홀

강연회

1.「의료에 있어서의 정성과 기능」
나카지마 히로아키(쇼와대학 의학부 교수)

2.「유기의 빛으로 미래를 비친다 — 첨단기술과 창조교육 —」
키도쥰지(야마가타대학 공학부 교수)

패널디스커션
패널리스트 : 나카지마 히로아키(쇼와대학 의학부 교수)
키도 쥰지(야마가타대학 공학부 교수)
나카지마 신이치로(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장)
스기바야시 켄지(죠사이대학 약학부 교수)
사 회 : 시라하타 아키라(죠사이대학 약학부 부장)
주 최 : 죠사이대학 약학부
후 원 : 사단법인 일본병원약사회

2005년12월10일(토) 동경 기오이쵸 캠퍼스에서 죠사이대학 약학부 주최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쇼와대학의 나카지마 교수와 야마가타대학 키도 교수 외에, 죠사이국제대학의 나카지마 신이치로 교수와 죠사이대학 약학부 스기바야시 교수등이 패널리스트로써 참가해 주셨다. 당일의 참가자는 일반40명, 교직원60명, 대학원과 학부생이 60명 이었고, 홀이 만석이었다. 심포지엄은 죠사이대학의 타나카 아키라학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었고, 시라하타 아키라 죠사이대학 약학부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의학교육 뿐만아니라, 약학교육에도 다대한 진력을 해주신 나카지마 교수는 「의료에 있어서의 정성과 기능」이라는 테마로 앞으로 목표로 해야 할 의료의 모습에 대해서 연설하셨다. 나카지마 교수는, 지금까지의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지식과 기능외, 태도 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셨다. 앞으로의 의료의 흐름은, 환자의 개인 차이를 이해하며 환자와 심정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환자의 인생이 포지티브가 되기 위해, 의료인으로써 책무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셨다. 또한 난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대부분이 충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차분한 어조로 언급하셨다. 나카지마 교수의 말씀을 듣고, 왠지 가슴에 울어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유기EL(엘렉트럴미네센스)소장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에디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키도 쥰지 교수에 의한「유기의 빛으로 미래를 비친다— 최첨단 기술과 창조 교육」이라는 테마로 유기소자 개발과 자신의 경력에 입각한 교육 이념에 대해 연설하셨다. 현재의 디스플레이 업계는,액정 전성기이지만 발광재료가 유기물로 열이 나지않는 초고효율 발광의 유기EL은 얇은 시트형의TV와 조명용의 광원으로써, 실용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첨단기술의 하나이다.이러

나카지마 히로아키 교수

키도 쥰지 교수

나카지마 신이치로 교수

스기 바야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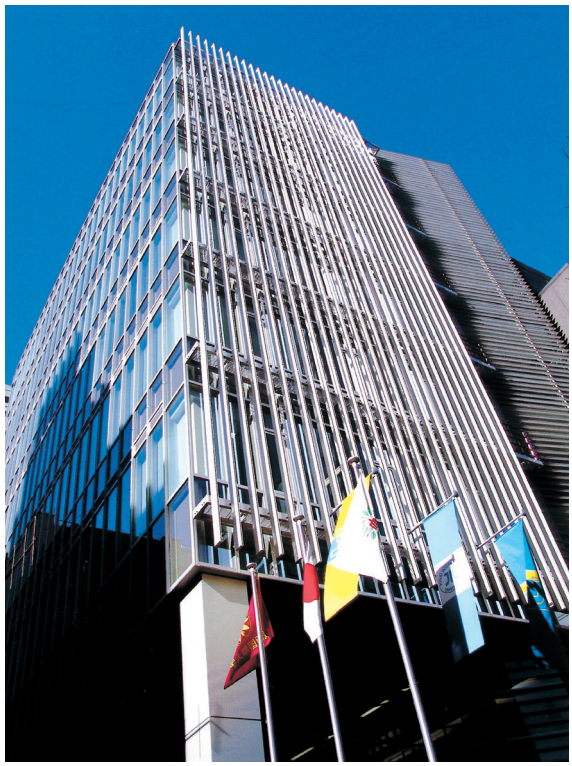
시라하타 아키라 부장

한 획기적인 연구개발에 창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역설하셨다. 또한 자신의 학력을 유머하게 소개하면서, 공부를 싫어한 키도 교수가 걸어온 자취에서의 전환점이 뉴욕대학때 였다는것, 그 곳에서 일념득도한 결과 지금이 있다는 것이다.

활동력이 넘치고, 곳곳 유머러스한 설명을 군데군데 썩어가면서 말씀하셨다. 심포지엄의 후반에서는, 사회자의 시라하타 약학부 부장으로부터 2006년도의 약학교육이 6년제로 이행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고방식도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정성과 기술과의 관점에서 약학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가라고 하는 취지의 설명을 하셨고, 패널디스커션을 했다. 의료에 종사하는 인재양성에 대해, 사람은 평가 받으면 태도가 변하는 것이므로,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태도도 같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다.나카지마 신이치로 약학부장은, 6년제에 이행을 해도 약학교육의 본질은 변함이 없을 뿐더러 여유를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인재육성에 이어진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의료의 장소에 있어서 오리지널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긍정적이였다. 스기바야시 교수로 부터는 졸업할때에는 오리지널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 싶다고라는 의견이 있었다. 나카지마 신이치로 약학부장이 설명한 환자와의 상호이해를 만드는 교육, 나카지마 히로아키 교수의 체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오리지널티교육에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키도 교수는 교육자가 꿈을 말하고 꿈을 주고, 학생을 자극하는 것이 창조교육에서는 소중한 것이라고 제창, 가정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패널디스커션의 마지막에 시라하타 약학부장은, 일본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의료, 과학 기술에 관해, 본 심포지엄에서 취급한 내용을 일반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것, 또한 죠사이대학 약학부와 죠사이국제대학 약학부는 함께 의료에 힘기울여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는 강한 주장으로 매듭지었다. 마지막으로, 나카지마 히로아키 교수와 키도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꽃다발을 증정하고 대성황리에 무사히 끝났지만, 앞으로의 약학교육을 생각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내용과 충실했던 심포지엄이었다.

●周辺図

교통안내
●地下鉄有楽町線　麹町駅 1番出口로 부터 도보3분
●地下鉄南北線･半蔵門線　永田町駅 9番出口로 부터 도보5분
●地下鉄丸の内線･銀座線　赤坂見附駅 弁慶口로 부터 도보8분
●JR中央線･総武線　四谷駅로 부터 도보10분



學校法人 城西大學
城西大學／城西短期大學　城西國際大學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03(6238)1300
學校法人 城西大學 http://www.josai.jp/
城西大學 http://www.josai.ac.jp/ 城西國際大學 http://www.jiu.ac.jp/

學校法人 城西大學 國際學術文化振興센터
〒102-0094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3-26
TEL 03(6238)1300 FAX 03(6238)1299